

시미즈 온천

시미즈 온천은 알칼리성 탄산수소나트륨 온천으로, 각질을 벗겨내고 모공을 씻어내어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고 여겨집니다. 그 역사는 주변 지역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

시미즈 주민들은 수십 년간 온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, 1980년대까지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목욕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그 당시 시미즈의 인구는 1960년의 최고 인구 11,377명에서 몇천 명대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.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문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공익 재단이 설립되어 시미즈 온천에 목욕 및 숙박 시설을 세웠습니다.

2024년, 원조 시미즈 온천 옆에 새로운 목욕 시설이 개장했습니다. 미스트 사우나, 편백나무 휴식 라운지 등의 최신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온천의 본래 목적이었던 지역 사회 부양을 이어 나가고자 현 시설은 대부분 현지 전문가가 설계 및 시공을 담당했으며, 건물 전체에 아리다가와의 고품질 목재를 사용했습니다.

또 하나 시미즈 온천의 새로운 특징은 순수 온천수만을 사용한 냉탕(미즈부로)이 있다는 점입니다. 대부분의 온천수는 원천이 25℃ 이상이어서 냉탕으로 사용하려면 찬물을 추가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이로온 미네랄 함량이 희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. 시미즈의 원천은 본래 17~23℃이므로 냉탕이 희석되지 않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채워집니다.